1997년도 한 의과대학 입학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태도 및 가치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정신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¹

유희정 · 한오수 · 홍창기¹

= Abstract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Personal Values of the Applicants at a College of Medicine of University

Hee-Jung Yoo, Oh-Su Han and Chang-Gi Hong¹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Department of Nephrology¹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Group characteristics(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personal values)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of 1997 at Ulsan College of Medicine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unsuccessful ones. The principal data were the responses of pre-entrance examination questionnaire survey were administered to all applicants.

The results were presented the headings of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financial status, 3) goals of college life, 4) reasons to choos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5) personal valu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may serve as the basic data to mak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s for the adjustment of medical students in the future.

Key Words: Applicant at college of medicine, Goals of college life, Personal value

서 론

의과대학 6년 과정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을 배출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사역할을 수행해 내야 함은 물론 주관적인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대생은 의과대학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Onady 등, 1988). 의과 대학의 교과과정과 환경여건은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지만 각 개인의 소인적 특성(characterological predisposition)과 가족력등은 쉽게 바뀌어 질 수 없다(Clark과 Zeldow, 1988). 따라서 우선 의대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생의 성적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

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원하는 동기수준, 가치관, 성격특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수준등 각 개인에 대해 다차원 상에서의 평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자신의 전공과목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문의가 된 이후 성공적인 의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서는 1997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의과대학에 입학한 당시부터 전문의에 합격하는 과정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성공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에 관해 종단적인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입학시험 당시, 면접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피상적으로만 다루었을 뿐, 그이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의대 입학 이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점은 외국 연구결과도 유사한데 전통적인 면접방식을 통해 얻은 자료로는 각 개인이 입학 이후 보이게 될 수행 특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었다(Simpson과 Budd,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7년도 울산대학 의과대학 특차 및 정시응시자 두 집단에 대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실제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반영하는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대비시켜 비교해 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물론 뚜렷한 차이가 없는 특성에 관한 정보 역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의대는 물론 전국 의과대학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학 당시 부터 의과대학 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7년도 울산대학 의과대학에 지원한 특차지원자 39명과 정시지원자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설문지 구성

특차지원생을 위한 설문지가 일차적으로 구성되었다. 정시지원생을 위한 설문지는 특차지원생에게 시행하였던 설문지를 다소 수정·보완하였다.

2) 설문지 실시방법

첫째, 특차생 면접일인 1996년 12월 23일에 실시한 특차전형시의 지원자 39명에 대해 설문지가 실시되었다. 둘째, 정시 면접일인 1997년 1월 4일 정시 전형시의 지원자 155명에 대해 설문지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전원은 면접 당일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사전에 배포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면접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반듯이 제출하고 가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특차 합격자 및 불합격자는 각각 19명과 20명으로 거의 동수였고 정시의 경우, 합격자(20명)에 비해 불합격자(135명)의 수가 많았지만 무선표집할 정도의 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은 T검증과 Chi-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의 비교

1) 성별

(1) 특차지원자의 성별특성

특차지원자의 경우,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남학생에 편중되어 있으나 합격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36.8%)이 불합격자 집단의 여성비율(21.4%)보다 높았다.

(2) 정시 지원생의 성별특성

합격자 집단은 전원(20명)이 남자(100.0%)인 반면 불합격자 집단은 남자가 74.8%, 여자가 25.2%로서 여성의 비율이 합격자 집단에 비하면 높았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성비율의 차이(Chi 자승값=6.45, p

표 1. 특차지원자의 성별특성

성별	합격자	불합격자
남	12 (63.2)	22 (78.6)
여	7 (36.8)	6 (21.4)
	19(100.0)	28(100.0)

표 2. 정시지원자의 성별특성

성별	합격자	불합격자
남	20(100.0)	101(74.8)
여	0(00.0)	34(25.2)
	20(100.0)	135(100.0)

표 3. 특차 및 정시지원자를 통합한 연령분포

	합격자	불합격자
17	4(10.3)	9(5.5)
18	16(41.0)	71(43.6)
19	12(30.8)	54(33.1)
20	1(2.6)	16(9.8)
21	1(2.6)	5(3.1)
22	—	2(1.2)
23	1(2.6)	2(1.2)
24	1(2.6)	—
25	1(2.6)	2(1.2)
26	1(2.6)	1(0.6)
27	—	1(0.6)
28	1(2.6)	—
	39(100.0)	163(100.0)

<0.05)가 있었다. 특차합격자는 여자의 비율이 36.8%에 달하는 반면 정시합격자는 전원이 남자였고 여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불합격자는 특차 및 정시지원자의 성별비율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2) 연령 분포

(1) 특차 및 정시지원자를 통합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연령분포

특차 및 정시지원생 전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의 분포상태가 상당히

표 4. 연령분포

연령분포	합격자	불합격자
17	3(15.8)	2(7.1)
18	7(36.8)	8(28.6)
19	8(42.1)	13(46.4)
20	1(5.3)	3(10.7)
21	—	1(3.6)
26	—	1(3.6)
	19(100.0)	28(100.0)

표 5. 출생연도별 분포

출생연도별 분포	합격자	불합격자
17	1(5.0)	7(5.2)
18	9(45.0)	63(46.7)
19	4(20.0)	41(30.4)
20	—	13(9.6)
21	1(5.0)	4(3.0)
22	—	2(1.5)
23	1(5.0)	2(1.5)
24	1(5.0)	—
25	1(5.0)	2(1.5)
26	1(5.0)	—
27	—	1(0.7)
28	1(5.0)	—
	20(100.0)	135(100.0)

유사하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범위는 만 17~28세 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70%이상은 만 18-19세 범위에 해당된다. 반면 합격자 중 18.2%(7명)와 불합격자 중 17.8%(29명)는 만 20세 이상이였다.

(2) 특차지원생의 연령분포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연령분포는 두 집단 모두 만 19세가 가장 많은데, 합격자의 경우는 42.1%(8명)가 그리고 불합격자의 경우는 46.4%(13명)가 각각 해당된다. 반면 합격자의 경우 만 17, 18세가 52.6% (10명)이고 21세 이상은 한명도 없는 반면 불합격자의 경우는 35.7%가 만 17, 18세에 해당되면서 21세와 26세도 각각 한명씩 포함되어 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합

표 6. 특차지원자의 종교

종 교	합격자	불합격자
기독교	5(26.3)	8(28.6)
천주교	3(15.8)	9(32.1)
불 교	3(15.8)	5(17.9)
기 타	2(10.5)	2(7.1)
무응답	6(31.6)	4(14.3)
	19(100.0)	28(100.0)

표 7. 정시지원자의 종교

종 교	합격자	불합격자
기 독 교	5(25.0)	29(21.5)
천 주 교	2(10.0)	34(25.2)
불 교	4(20.0)	24(17.8)
무교 및 기타	6(30.0)	33(24.4)
무 응 답	3(15.0)	15(11.1)
	20(100.0)	135(100.0)

격자집단이 불합격자 집단에 비해 연령수준이 다소 낮은 경향성은 있다.

(3) 정시지원자의 연령분포

정시지원생 집단의 경우도 특차지원생 집단과 유사하게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만 18, 19세에 합격자 집단이 65%, 불합격자 집단은 77.1%가 분포함으로써 상당한 비율이 이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만 20세 이상의 연령부터 만 27, 28세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연령분포를 보이면서 특차지원생 집단과 차이를 드러냈다.

3) 종교

(1) 특차지원자의 종교

합격자의 경우 무응답(31.6%)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독교가 26.3%(5명),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15.8%(3명)이었다. 무응답이 31.6%(6명)로 가장 많았다. 불합격자의 경우는 천주교가 32%(9명)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28.6%), 불교(17.9%) 순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자의 경우도 무응답이 14.3%(4명)였다. 합격자는 31.6%가 그리고 불합격자는 14.3%

표 8.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	합격자	불합격자
부모생존	18(94.7)	28(100.0)
부사망	1(5.3)	—
모사망	—	—
양친사망	—	—
	19(100.0)	28(100.0)

가 무응답을 한점은 아직 뚜렷한 종교관이 설정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2) 정시지원자의 종교

정시지원자의 경우는 무교 및 기타종교(종교명을 기재토록 했으나 기재하지 않았음)가 30.0%(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25%), 불교(20%), 무응답(15%) 및 천주교(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불합격자 집단은 천주교(25.2%), 무교 및 기타(24.4%), 기독교(21.5%), 불교(17.8%) 및 무응답(11.1%) 순이었다. 합격자 집단은 기독교와 불교가 많고 불합격자 집단은 천주교와 기독교 및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다수 보고하였다. 특차합격자 집단과 유사하게 정시합격자집단도 기독교가 가장 많았고, 무교 및 기타종교가 30%, 무응답이 15%나 보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30~45%는 뚜렷한 종교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불합격자 집단에서도 상당히 유사하였다.

4) 부모의 생존여부

(1) 특차 지원자 부모의 생존여부

합격자 집단에서 단 1명만 부사망상태였고 그외에는 합격자 및 불합격자 집단 전원 부모가 생존한 상태였다.

5) 부모의 직업

(1) 특차지원자 부모의 직업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부모의 직업 중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합격자 집단의 경우는 전문직(기술전문직 포함)이 30.6%(6명)였던

표 9. 특차지원자 부모의 직업

부모의 직업	합격자	불합격자
1. 사 무 직	7(36.8)	12(42.9)
2. 관 리 직	—	1(3.6)
3. 전 문 직	5(26.3)	2(7.1)
4. 판 매 업	—	4(14.3)
5. 농수산업	—	—
6. 기술전문직	1(5.3)	—
7. 기 능 직	—	1(3.6)
8. 조 경	—	—
9. 서어비스업	5(26.3)	1(3.6)
10. 육체노동	—	1(3.6)
11. 무 직	—	—
12. 기 타	1(5.3)	6(21.4)
	19(100.0)	28(100.0)

표 10. 정시지원자의 父직업

부직업	합격자	불합격자
의 사	4(20.0)	18(13.3)
사업 및 상업	4(20.0)	27(20.0)
교 육 계	3(15.0)	17(12.6)
회 사 원	5(25.0)	49(36.3)
무 직	1(5.0)	—
약 사	—	5(3.7)
농 업	—	4(3.0)
군인 및 경찰	—	3(2.2)
기 타	1(5.0)	4(3.0)
무 응 답	2(10.0)	8(5.9)
	20(100.0)	135(100.0)

반면 불합격자 집단은 전문직이 7.1%(2명)에 불과하였다. 합격자 집단은 사무직, 전문직을 제외하면 기타 직종 1명 이외에 나머지 합격자의 부모는 서어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불합격자 집단 부모의 직업은 기능직, 서어비스업, 육체노동 및 기타직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모직종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 자승값=15.69, $p<0.05$).

(2) 정시지원자의 父직업

정시지원자 합격자 집단은 아버지의 직업 중 회사원(2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사(20%)

표 11. 정시지원자의 母직업

모직업	합격자	불합격자
주 부	14(70.0)	70(51.9)
교 육 계	3(15.0)	8(5.9)
요 리 사	1(5.0)	—
사회사업	1(5.0)	—
회 사 원	—	3(2.2)
사업 및 상업	—	7(5.2)
의료계(간호사,약사)	—	6(4.4)
기 타	—	3(2.2)
무 응 답	1(5.0)	38(28.1)
	20(100.0)	135(100.0)

와 사업 및 상업(20%)이 동수였다. 그 다음은 교육계 종사자(15%), 무응답(10%) 순이었고 무직(5%)과 약사(5%)도 한명씩 보고되었다. 불합격자 집단은 회사원(36.3%)이 역시 가장 많았고 사업 및 상업(20%), 의사(13.3%) 그리고 교육계 종사자(12.6%) 순이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불합격자 집단의 아버지 직업이 다소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즉, 무응답자(5.9%)에 이어 약사(3.7%), 농업(3.0%), 기타(3.0%) 그리고 군인 및 경찰(2.2%) 순으로 보고되었다. 특차합격자의 경우는 父직업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부모직업을 모두 반영했던 차이는 있지만 특차지원자 부모직업 중 전문직종이 두드러졌던 것과 달리, 정시합격자의 경우는 의사가 20% 해당되는 동시에 사업 및 상업, 교육계 종사자, 회사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시지원자 중 합격자 집단보다 불합격자 집단의 父직업이 좀 더 다양하였다.

(3) 정시지원자의 母직업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어머니 직업 중 두 집단 모두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합격자 집단은 주부(70%)에 이어 교육계 종사자(15%)가 높게 나타났고 요리사, 사회사업 및 무응답이 각각 1명씩 보고되었다. 불합격자 집단은 합격자 집단보다 비율은 낮았지만 역시 주부(51.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무응답(28.1%)자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을 제한하여 제시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기재토록 했던 점

표 12. 특차지원자의 학비부담자

학비부담자	합격자	불합격자
본 인	—	—
아버지	15(78.9)	28(100%)
어머니	—	—
조부모	—	—
장학금	4(21.1)	—
	19(100.0)	28(100.0)

표 13. 정시지원자의 학비부담자

학비부담자	합격자	불합격자
본 인	—	3(2.2)
아버지	17(85.0)	128(94.8)
어머니	2(10.0)	3(2.2)
형제	1(5.0)	—
그외친지	—	1(0.7)
	20	135

을 감안한다면 무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던 점은 어머니의 직업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점도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무응답에 이어 교육계 종사(5.9%), 사업 및 상업(5.2%), 의료계(간호사, 약사(4.4%)), 회사원(2.2%) 및 기타(2.2%) 순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Chi 자승값=23.10, $p < 0.001$).

2. 경제적 상황

1) 학비부담자

(1) 특차지원자의 학비부담자

특차지원자 중 합격자의 경우는 학비부담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78.9%(15명)였고 나머지 21.0%(4명)는 장학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불합격자는 전원이 아버지가 학비부담자로 보고되면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Chi 자승값=6.44($p < 0.05$))가 있었다. 특차지원자 합격자가 불합격자에 비해 학비부담을 장학금에 좀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시지원자의 학비부담자

정시 지원자의 학비부담은 합격자(85%)와 불합격

표 14. 특차지원생의 장학금의 필요여부

장학금의 필요 여부	합격자	불합격자
필요	19(100.0)	25(89.3)
불필요	—	2(7.1)
무응답	—	1(3.6)
	19(100.0)	28(100.0)

표 15. 특차지원자의 장학금의 필요이유

장학금의 필요이유	합격자	불합격자
생활비, 등록금, 기타학비	4(21.1)	7(25.0)
등록금, 기타학비	9(47.4)	11(39.3)
기타학비	—	—
학비에 보탬	6(31.6)	7(25.0)
무응답	—	3(10.7)
	19(100.0)	28(100.0)

자(94.8%) 집단 모두 아버지에 편중되어 있었다. 합격자 집단의 경우 그외에 어머니(10%)와 형제(5%) 순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자 집단인 경우는 어머니와 본인이 동수로 3.2%(3명)씩 학비부담자로 나타났고 1명은 그외 친치로 보고하였다.

2) 특차지원자의 장학금의 필요여부

합격자, 불합격자 집단 모두 대부분이 장학금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합격자 집단은 전원이 장학금을 필요로 한 반면, 불합격자 집단은 7.1%(2명)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3.6%(1명)는 무응답이었다.

3) 특차지원자의 장학금의 필요이유

특차지원자의 장학금의 필요이유로는 등록금, 기타학비를 위해 주로 필요로 했는데 합격자 집단은 47.4%(9명)가, 불합격자 집단은 11명(39.3%)이 해당되었다. 등록금, 기타학비 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한 경우는 합격자 집단이 21.1%를, 불합격자 집단은 25.0%(7명)를 보고하였다. 이외에는 기타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합격자 집단은 31.6%(6명)가 그리고 불합격자 집단은 25.0%(7명)가 해당되었다. 전반적으로 장

표 16. 특차지원자의 대학생활의 목표

대학생활의 목표	합격자	불합격자
장래취업	4(21.1)	6(21.4)
소질계발	3(15.8)	4(14.3)
전문적 지식의 습득	8(42.1)	12(42.9)
첨단지식의 습득	—	1(3.6)
전공공부	4(21.1)	5(17.9)
	19(100.0)	28(100.0)

표 17. 특차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의 영향원

의대선택의 영향원	합격자	불합격자
선배, 친구	1(5.3)	1(3.6)
교 사	—	1(3.6)
부 모	5(26.3)	5(17.9)
본 인	12(63.2)	18(64.3)
기 타	1(5.3)	3(10.7)
	19(100.0)	28(100.0)

학금은 등록금과 기타학비를 위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차지원자는 전원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점. 장학금을 주로 학비(합격자: 79%, 불합격자: 64.3%) 충당을 위해 받길 희망하였다. 그런데 생활비까지 충당하길 원하는 경우는 21.1%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특차지원자의 경우, 울산대 선택의 중요한 이유로 생활비(기숙사 생활)까지 보장받길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대학생활 목표에서의 비교

1) 특차지원자의 대학생활의 목표

특차지원자의 대학생활의 목표는 합격자 집단과 불합격자 집단 모두 약 42% 정도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일차적인 목표로 선택하였다. 합격자 집단은 그 다음 목표로 장래취업과 전공공부의 비율이 21.1%로 동일하였고, 그 다음은 소질계발순이었다. 불합격자 집단도 합격자 집단과 매우 유사하였지만 전문적 지식의 습득 다음으로 장래취업(21.4%), 전공공부(17.9%) 및 소질계발(14.3%) 순이었다. 특차지원자의 경우, 대학생활의 목표로는 일차적으로 전

표 18. 특차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

	합격자	불합격자
취 업 전 망	5(26.3)	7(25.0)
사회적 지위	—	—
학문적 흥미	7(36.8)	11(39.3)
입학 가능성	—	—
자신의 적성	6(31.6)	9(32.1)
기 타	1(5.3)	1(3.6)
	19(100.0)	28(100.0)

문적 지식의 습득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장래취업과 전공공부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현대 사회에서 의과대학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안정된 장래와 관련된 것으로 속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차적으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과대학 선택 및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1) 의과대학 선택의 영향원

(1) 특차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의 영향원

의과대학 선택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본인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 각각 63.2%와 64.3%로 본인이 선택한 비율은 상당히 일치되고 있다. 그 다음은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영향이 의과대학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선배와 친구 순이었다. 교사의 영향은 단지 불합격자 집단의 3.6%(1명)가 해당되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의과대학 선택은 본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

(1) 특차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

의학과 선택시의 고려요인으로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일차적으로는 학문적 흥미를, 둘째, 자신의 적성을 그리고 셋째, 취업전망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따라서 의과대학 선택시에는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표 19. 정시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

	합격자	불합격자
취업전망	4(20.0)	31(23.0)
사회적 지위	1(5.0)	1(0.7)
학문적 흥미	6(30.0)	40(29.6)
입학 가능성	—	1(0.7)
자신의 적성	9(45.0)	54(40.0)
기타	—	8(5.9)
	20(100.0)	135(100.0)

표 20. 특차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합격자	불합격자
가장 원해서	13(68.4)	14(50.0)
주위의 압력때문	—	—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력이 모자라서	5(26.3)	10(35.7)
기타	1(5.3)	4(14.3)
	19(100.0)	28(100.0)

취업전망을 일차적 고려요인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학문적 흥미와 자신의 적성을 더욱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시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

정시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은 합격자 및 불합격자 집단 모두 첫째 자신의 적성을, 둘째 학문적 흥미를 그리고 셋째 취업전망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합격자 집단은 사회적 지위를 한명이 고려하였다. 불합격자 집단은 기타(내용을 상세히 기록토록 하였지만 기록하지 않았음)가 5.9%였고 사회적 지위를 1명이 보고하였다. 정시지원자의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은 특차합격자가 학문적 흥미를 첫 번째의 고려요인으로 선택했던 점과 차이를 보이지만 세 가지 고려요인의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점은 정시불합격자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1) 특차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합격자 집단

표 21. 정시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영향원

	합격자	불합격자
부모, 친척, 친지	14(70.0)	67(49.6)
친구	2(10.0)	20(14.8)
학교선생님	—	5(3.7)
학원선생님	—	4(3.0)
선배	1(5.0)	12(8.9)
진학관련잡지	2(10.0)	10(7.4)
일간지	1(5.0)	7(5.2)
기타	—	10(7.4)
	20(100.0)	135(100.0)

은 68.4%가 가장 원해서 울산대학교를 선택했다고 보고한 점으로 미루어 거의 70% 정도는 울산대학교를 가장 원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불합격자 집단은 과반수인 50%(14명)가 울산대학교를 가장 원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그 다음은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력이 모자라는 35.7%(10명)가 보고하였다. 불합격자 집단에 비해 합격자 집단이 울산대학교를 가장 원하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2) 정시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영향원

울산대학교 선택의 영향원은 합격자집단은 부모, 친척이나 친지를 통해서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친구와 진학관련잡지를 통해서 각각 10%씩이었으며, 선배와 일간지를 통해서 각각 1명(5%)씩 보고하였다. 불합격자 집단은 부모, 친척, 친지를 통해서 49.6%, 그 다음이 친구로 14.8%였다. 세 번째로는 선배(8.9%)였고 진학관련잡지와 기타가 각각 7.4%였다. 끝으로 일간지(5.2%, 학교선생님 3.7%) 그리고 학원선생님(3.0%)이었다.

(4) 정시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합격자 집단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서울중앙병원에서 본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5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훌륭한 교수가 많은 것과 졸업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련받기 위한 두 가지 내용이 각각 20%로 나타났다. 네 번째 이유로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과

표 22. 정시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

	합격자	불합격자
훌륭한 교수가 많아서	4(20.0)	19(14.0)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1(5.0)	23(17.0)
장학금을 받기 위해	1(5.0)	1(0.7)
서울캠퍼스와 서울중앙병원에서 본과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	10(50.0)	63(46.7)
졸업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련받기 위해	4(20.0)	27(20.0)
기 타	—	2(1.5)
	20(100.0)	135(100.0)

표 23. 특차지원자의 가치관

가 치 관	합격자	불합격자
화목한 가정	10(52.6)	12(42.9)
건 강	5(26.3)	4(14.3)
의리있는 친구	2(10.5)	3(10.7)
돈	—	—
명 예	1(5.3)	1(3.6)
의사로서의 직업적 성공	1(5.3)	8(28.6)
	19(100.0)	28(100.0)

장학금을 받기 위한 것을 각각 1명씩 보고하였다. 불합격자 집단의 경우도 첫 번째 이유는 서울캠퍼스와 서울중앙병원에서 본과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46.7%가 해당되었다. 두 번째는 졸업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련받기 위한 것이 20%였고, 세 번째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17.0%) 그리고 네 번째는 훌륭한 교수가 많은 것(14.0%)으로 보고하였다. 기타(1.5%)와 장학금을 받기 위한 경우(0.7%)도 있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 서울캠퍼스와 서울중앙병원에서 본과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과 졸업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한 점은 거의 동일하다. 그외에 합격자 집단은 훌륭한 교수가 많은 점(20%)을 중시하고 시설이 좋은 점(5.0%)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불합격자 집단은 시설이 좋은 점(17%)이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였고, 네 번째 이유가 훌륭한 교수가 많은 것(14%)으로서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 자승값=21.57, $p<0.05$).

표 24. 특차지원자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두 가지

	합격자	불합격자
소신대로 사는 것	13(68.4)	8(28.6)
화목한 가정	9(47.4)	11(39.3)
좋은 친구	—	3(10.7)
돕고 봉사하는 생활	6(31.6)	8(28.6)
건 강	3(15.8)	4(14.3)
창조력 발휘	1(5.3)	4(14.3)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	3(15.8)	7(25.0)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건조성	—	2(7.1)
지성적인 삶	2(10.5)	4(14.3)
경제적 풍족	—	2(7.1)
종교적인 삶	1(5.3)	1(3.6)
문화예술을 즐김	—	2(7.1)
유명인사가 되는 것	—	—
	38(200.0)	56(200.0)

5. 가치관

1) 가치관

(1) 특차지원자의 가치관

특차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합격자 집단과 불합격자 집단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모두 화목한 가정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합격자: 52.6%, 불합격자: 42.9%)한 점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은 합격자 집단은 건강, 의리있는 친구, 명예, 의사로서의 직업적 성공순이었다. 그러나 불합격자 집단은 두 번째로 의사로서의 직업적 성공, 건강, 의리있는 친구, 명예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25. 정시지원자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1인당 2가지씩)

	합격자	불합격자
1. 소신대로 사는 것	7(35.0)	60(44.4)
2. 화목한 가정	5(25.0)	48(35.6)
3. 좋은 친구	4(20.0)	22(16.3)
4. 돕고 봉사하는 생활	5(25.0)	30(22.2)
5. 건강	4(20.0)	28(20.7)
6. 창조력 발휘	3(15.0)	10(7.4)
7.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	7(35.0)	28(20.7)
8.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	1(5.0)	12(8.9)
9. 지성적인 삶	1(5.0)	9(6.7)
10. 경제적 풍족	—	5(3.7)
11. 종교적인 삶	2(10.0)	10(7.4)
12. 문화예술을 즐김	—	8(5.9)
13. 유명인사가 되는 것	—	—
	39(195.0)	270(200.0)

표 26. 정시지원자의 의사의 장래에 대한 견해

	합격자	불합격자
밝다고 생각한다	16 (80.0)	103 (76.3)
어둡다고 생각한다	3 (15.0)	30 (22.2)
무 응 답	1 (5.0)	2 (1.5)
	20(100.0)	135(100.0)

합격자 불합격자 집단 모두 화목한 가정을 가장 중시한점은 일치되었지만 불합격자 집단이 합격자 집단 보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성공을 좀 더 중요한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합격자 및 불합격자 집단 모두 돈을 가장 중시한다고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1) 특차지원자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특차지원자를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1인당 2가지씩)을 선택토록 한 결과 합격자 집단은 소신대로 사는 것(68.4%)이 가장 높았고, 화목한 가정(47.4%)이 두 번째 였으며, 세 번째가 돕고 봉사하는 생활(31.6%)이었으며 건강과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이 각각 15.8%(3명)였다. 여섯 번째는 지성

적인 삶이었고, 일곱 번째는 창조력 발휘와 종교적인 삶이 각각 5.3%(1명)씩 해당되었다.

불합격자집단은 화목한 가정(39.3%)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고 두 번째 고려요인으로는 동시에 소신대로 사는 것(28.6%)과 돕고 봉사하는 생활(28.6%)을 선택하였다. 네 번째 고려요인으로는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25.0%)을 선택하였다. 다섯 번째 고려요인으로는 동시에 건강(14.3%), 창조력 발휘(14.3%) 및 지성적인 삶(14.3%)을 선택하였다. 여덟 번째 고려요인으로는 좋은 친구(10.7%)를 아홉 번째 고려요인으로는 동시에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7.1%)과 문화예술을 즐김(7.1%)을 선택하였다. 열한 번째 고려요인으로는 경제적 풍족(3.6%)과 종교적인 삶(3.6%)을 각각 선택하였다.

합격자 집단과 불합격자 집단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면서도 화목한 가정, 소신대로 사는 것, 돕고 봉사하는 생활을 세 번째 까지의 고려요인으로 선택한 점은 상당히 유사하다.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 지성적인 삶, 창조력 발휘 등을 중시하면서도 이보다는 우선 소신대로 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돕고 봉사하는 생활을 더욱 중시하는 점은 특징적이며,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삶의 질이 중요하며 이부분이 충족되었을 때 직

업적, 학문적 성취가 가능해 집을 시사하고 있다.

(2) 정시지원자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합격자 집단이 인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소신대로 사는 것과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이 동일하게 35%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합격자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25%), 돕고 봉사하는 생활(25%)이었다. 다섯 번째로 중시하는 것은 좋은 친구(20%), 건강(20%)이었다. 일곱번째로 중시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10%)이었고, 끝으로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5%)과 지성적인 삶(5%)이 각각 보고되었다.

불합격자 집단의 경우는 소신대로 사는 것(44.4%)의 반응률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화목한 가정(35.6%), 세 번째는 돕고 봉사하는 생활(22.2%)이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과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이 각각 20.7%였고 좋은 친구는 16.3%였다. 그 다음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8.9%), 창조력 발휘(7.4%), 종교적인 삶(7.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성적인 삶(6.7%), 문화예술을 즐김(5.9%), 경제적인 풍족(3.7%) 순으로 나타났다.

3) 정시지원자의 의사의 장래에 대한 견해

의사의 장래에 대한 각 개인의 견해는 합격자 집단은 80%가, 불합격자 집단은 76.3%가 밝다고 보고하였다. 어둡다고 생각한 경우는 합격자 집단이 15%, 불합격자 집단이 22.2%였다.

고 찰

특차 및 정시지원자집단을 각각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구분하여 나타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성별특성을 보면, 특차 지원자 및 정시지원자 집단 모두 불합격자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여자 불합격자 비율의 세배 정도되었다. 이처럼 불합격자 집단의 남자비율이 여자비율보다 높은 점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현실적인 지망(차재호와 정지원, 1989)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분포는 특차 및 정시지원자 중에서 특차합격자 집

단은 만 20세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현역 나이보다 연령이 높아질 수록 합격 가능성이 낮은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된다. 그러나 정시지원자의 연령분포는 만 17세부터 28세 까지 폭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다. 종교는 특차지원자의 경우, 합격자는 기독교, 천주교 및 불교순이었다. 불합격자는 천주교, 기독교 및 불교순이었다. 정시지원자의 경우는 합격자는 무교 및 기타(기재토록 했으나 기재하지 않았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 불교순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자집단은 천주교가 가장 많고 기독교 및 불교순이었다. 그런데 특차합격자는 물론 정시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무교 및 기타(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였으나 기재하지 않았음)반응이 각 집단별로 30% 전후하여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집단과 무관하게 모든 지원자 중에서 다수가 현재까지 뚜렷한 종교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특차지원자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부모가 생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직업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즉, 특차합격자의 부모는 전반적으로 직종의 수는 적으면서 전문직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었다. 정시합격자의 경우는 불합격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父의 경우 종사하는 직종의 수는 적으면서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母의 경우 합격자 집단은 주부와 교육계 종사자가 대부분인 반면 불합격자집단의 경우는 무응답과 기타(기재토록 했으나 반응하지 않았음)의 직종으로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합격자 집단의 부모의 비해 불합격자 집단의 부모가 실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시간이 적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학비부담자는 모든 집단에서 아버지가 가장 높았고, 특차합격자 지원이 장학금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려는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셋째, 대학생생활의 목표는 특차지원자의 경우,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일차적으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장래취업과 전공공부가

해당되었다.

넷째, 의과대학 선택시의 고려요인으로 특차지원의 경우,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학문적 흥미, 자신의 적성 그리고 취업전망순으로 보고하였다. 정시지원자의 경우 역시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자신의 적성, 학문적 흥미 그리고 취업전망순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선택은 학문적 흥미와 자신의 적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로 특차지원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일차적으로 울산대학을 가장 원해서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한 과정에서 안전 내지는 하향지원보다는 소신지원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시지원자의 울산대학교 선택의 이유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서울캠퍼스와 서울중앙병원에서 본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의 이유로 들었다. 그외에 졸업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점, 훌륭한 교수가 많은 점 등을 들었다. 울산대학교 선택의 영향원으로 정시합격자의 경우 대부분이 부모, 친척, 친지를 들었고 그외에 친구, 진학관련잡지등이 보고되었지만 교사는 한 명도 보고하지 않았다. 실제 대부분 진학관련문제는 학교교사와 의논하는 사례와 다른 특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좀 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특성, 서울중앙병원에서 이루어 지는 본과교육과정, 졸업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의 수련과정 등에 대해 장차의 지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치관은 특차지원생의 경우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 모두 일차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중시한 점은 동일했고 합격자 집단은 이외에 건강, 의리 있는 친구, 명예, 의사로서의 직업적 성공순이었다. 불합격자 집단은 의사로서의 성공, 건강, 의리있는 친구, 명예순이었고 합격자 집단에 비해 의사로서의 성공을 중시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특차지원자 및 정시지원자를 합격자와 불합격자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순위는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화목한 가정, 소신대로 사는 것과 돕고 봉사하는 생활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정시

합격자 집단만 세집단과 달리 직업에서의 존경과 인정을 소신대로 사는 것과 동일하게 가장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울산의대 지원자들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명예, 지도력의 발휘등이 아닌 화목한 가정, 소신대로 사는 것, 돕고 봉사하는 생활 등을 중시하면서 개인적인 가치를 좀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잊점은 의과대학의 특수성과도 연관지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특성이 중요한 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의사의 장래에 대한 견해는 정시지원자의 경우, 합격자와 불합격자 구분없이 약 80% 정도가 의사의 장래가 밝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인턴, 전공의 과정을 통해 전문의를 취득할 때 까지 각 시점마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장차 의대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필요성이 크다.

요 약

본 연구는 1997년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원자를 특차지원자와 정시지원자 각각을 합격자와 불합격자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태도, 개인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인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밝혀 보았다. 실시방법은 모든 지원자에 대해 면접시험시에 자기보고식 검사를 완성토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정상태, 대학생활의 목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연구결과가 장차 의대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차재호, 구정숙, 정지원: 1988년도 신입생의 특성보고.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2: 71-107, 1987
2. 차재호, 정지원: 1988년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특성 비교.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4:107-124, 1989
3. 차재호, 원호택, 구정숙, 정지원: 서울대생의 집단특성 연구(1).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4:1-79, 1989
4. Clark DC, Zeldow PB: Vicissitudes of depressed mood during four years of medical school. JAMA 260:2521-2528, 1988
5. Onady AA Rodenhauser R, Markert RJ: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phobia on medical students' specialty choices. J Med Ed 63:162-170, 1988
6. Simpson KH, Budd K: Medical student attrition: a 10-year survey in one medical school. Med Ed 30:172-178, 1996